

과학대중화를 이끄는 '사이언스 라이터'

90년대 이후 대거 출현... 활발한 저술·번역 활동

'사이언스 라이터'. 우리에게 아직 낯선 이름이다. 과학의 세계를 일반 대중들에게 '글과 책'으로써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직업을 일컫는 이 이름은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한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과학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을 단 평론가들은 물론 전문적인 번역 집단까지 생겨나는 등 국내에서도 '사이언스 라이터' 직업군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학저술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

이인식(과학저술가) 김제완(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현원복(과학칼럼니스트) 등은 이 방면의 대표주자들.

먼저, 지난 93년《겨우 존재하는 것들》(민음사)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김제완 교수는 《빛은 있어야 한다》를 비롯한 저서와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물리학자. 그의 책《겨우 존재...》는 "너무 가벼운 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들을 만큼 소림자, 퀴크, 중성미자, 타임머신, 다크물질, 대폭발, 초신성 등 현대 물리학의 세계를 누가 들어도 알기 쉬운 예제이 형식으로 설명, 어려운 과학의 세계에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사람과 컴퓨터》(까치)《하이테크 혁명》의 이인식(50)씨는 본격적인 의미의 국내 첫 사이언스 라이터라 할 만하다. 그가 쓴 책을 직접 만들기도 했으며《사람과 컴퓨터》를 읽고 매우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민음사의 이갑수 편집장은 그를 가리켜 "과학의 지평도를 가장 잘 그리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그가 어느 한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 전반에 걸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글을 쓰기 때문.

《월간조선》과《과학동아》에 92년 4월부터 94년 말까지 '이인식의 과학칼럼'이란 이름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민음사)는 로봇과 가상현실의 세계, 무인전쟁의 가능성과 같은 때로 두렵게 다가오는 과학 진보의 미래가 이처럼 흥미진진하게 읽힐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의 글의 장점은 과학의 세계도 문학처럼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 그는 이미 75년《환상기행》이란 작품집을 낸 바 있는데, 꼼꼼한 논증과 광범위한 독서, 글쓰기의 철저함은 널리 인정된 바이다.

과학 칼럼니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원

최근들어 '과학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을 단 평론가와 전문 번역집단까지 생겨

나는 등 국내에서도 '사이언스 라이터'

직업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세계를 알기 쉽게

전달한 김제완, 과학전반에 걸쳐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이인식, 30여종의 과학저서를 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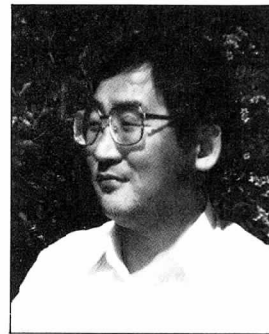
과학칼럼니스트 현원복씨 등

저술·번역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복 씨는 현재 65세임에도 '자유기고가'란 이름을 내걸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68년 이후 거의 매년 한두권씩 펴낸 책이 현재 30여종에 이른다. 얼마전에도 '하이테크의 불가사의한 세계, 나노테크의 별나디 별난 세계'란 부제를 단《나노테크 순가락》(동아출판사)을 펴내 화제를 모았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하이테크 달걀》《21세기를 여는 첨단과학기술》 등이 있다. 서울신문사 과학부장·논설위원을 거쳐 한때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과학보도'라는 독특한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기초과학 분야 중 가장 지긋지긋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수학'을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만든 사람이 한양대 수학과 김용운 명예교수다.《인간학으로서의 수학》등 수학이 입시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실생활 구석구석에서 응용되는 살아있는 실용학문임을 증명해보여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와세다대)까지 나온 독특한 이력으로 한·일문화비평서도 여럿 출간했는데, 성격이 판이한 두 '전공' 분야로 인해 한때는 동명이인으로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대중을 타겟으로 한 과학저술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가 권오길(강원대 생물학과), 박시룡(교원대 생물학과) 교수. 권오길 교수가《꿈꾸는 달팽이》《인체기행》《생물의 죽살이》(이상 지성사)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역설하고 있다면,《술취한 코끼리가 늘고 있다》(웅진)《재미있는 동물이야기》(지구촌)의 박시룡 교수는 '동물 사회 행동학'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소개, 화제를 모았다.



이인식 김제완 홍욱희 김명자 현원복 권오길 (윗줄 왼쪽부터)

'과학시대'(대표 김동광)는 대학강사와 고교 교사들이 모여 번역·저술 작업으로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모임이다. '과학의 대중화, 인간을 위한 과학'을 모토로 지난 89년 구성, 현재까지 50여권의 책을 집필·번역해 왔다. 현재까지는 저술보다 번역에 치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인 사이언스 라이터 집단으로 '집필' 작업에 주력할 예정.

번역작업에 앞장서온 사람들

소속 회원들 가운데, 윤소영(《생물에세이》 지음) 황현숙(《인간게놈프로젝트》 번역) 오동훈(《사회속의 과학, 과학속의 사회》 지음) 등은 개인의 이름으로 저·역서를 펴내기도 했다.

특정분야가 아니라 학제간에 걸친 과학책들을 주로 번역해오고 있는 이가 홍욱희(40, 한국전력공사 책임연구원)씨. 전공은 환경과학이다.《마이크로 코스모스》(린 마굴리스, 범양사출판부)《가이아》(제임스 러브록, 범양사출판부)《100년 이후 그리고 인간의 선택》(조너선 위너, 김영사)《가이아의 시대》(범양사출판부) 등이 있다. 범양사 출판부에서 책을 많이 펴냈다.

교양과학 분야의 스테디셀러《과학혁명의 구조》(토마스 S. 쿤, 동아출판사)를 번역한 숙명여대 김명자(화학) 교수는 '과학저술인협회 저술상'(8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95년) 등 다채로운 수상경력의 소유자.

현재 과학고등학교의 교과서로 쓰이는《과학사》를 비롯,《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현대인과 비타민》《엔트로피》《앞으로 50년》 등 다수의 저·역서를 펴내는 등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문학 분야의 나대일(세종대 천문학과), 생물학 분야의 이병훈(강원대), 물리학의 이필렬(방송통신대) 교수, 과학철학에 관심을 갖고《시간과 공간의 철학》(서광사)《생명의 논리》(민음사) 등 이 분야의 책을 상당수 번역했고 또 번역상도 받은 바 있는 이정우(서울대 강사)씨 등의 활발한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오늘의 사이언스 라이터를 낳은 기반을 조성한 중견들의 모임인 '한국과학저술가협회'(회장 송상용)는 현직 교수, 과학전문 출판사 사장, 과학관련 저널 편집자 등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희(고려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민영기(경희대 우주천문학과) 박택규(건국대 물리학과) 손영수(전과과학사 회장) 박성래(외국어대 사학과) 등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신문·잡지·방송·저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학의 존재를 알리는 데 적극 활약해 왔다.

'21세기는 과학이 지배한다'는 미래학자들의 명제에 입각해 본다면 이제서 본격화하고 있는 '사이언스 라이터'들의 활동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정혜옥 기자